

금호석유화학, 세계1위 20개 배출

2020년 매출목표 20조원 ... 정밀화학·전자화학에 첨단소재 강화

금호석유화학이 2020년까지 세계 1위 상품을 20개 배출함으로써 매출 2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1월3일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시무식을 겸한 비전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10년간의 사업계획인 비전 2020을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까지 매출액 20조원, 세계 1위 상품 20개를 달성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화학그룹으로 도약하겠다”며 “기술력, 품질, 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사업인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사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정밀화학, 전자화학, 에너지, 전자재 사업 등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불용성 유황, CNT(탄소나노튜브),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등 첨단 소재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박찬구 회장은 “비전 2020은 화학계열사가 모두 협력해 이루어야 하는 목표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비전 달성을 위해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상생경영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04>